

50대, 교회 헌금액 가장 높아!

나눔/기부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이다.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 기부금 총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의 기부 참여율과 대중의 기부 문화 신뢰도는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넘버즈는 기부 관련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기부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기부 총액과 유형의 변화 추이, 개인의 기부 동기와 태도, 기부 문화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나아가 유산 기부나 종교 단체 헌금 같은 특별한 기부 형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넘버즈 300호>가 한국 사회의 나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기부 생태계 조성에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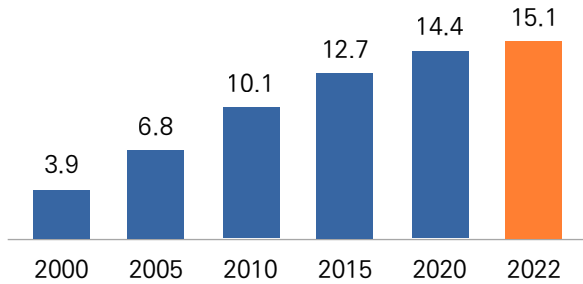
01

[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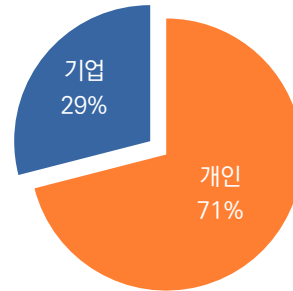
국내 기부금 총액,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5.1조 원으로 집계됐다.
- 기부 주체별 비중을 보면 개인 71%, 기업 29%로, 개인 기부가 주를 이뤘다.

[그림] 국내 연도별 기부 총액 추이 (2000~2022, 조 원)



[그림] 기부금 비중 : 개인 vs 기업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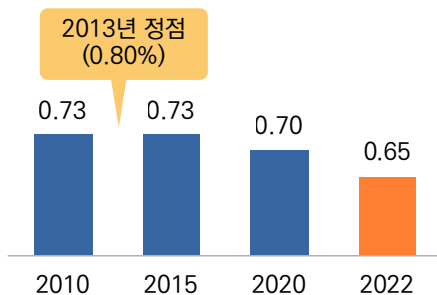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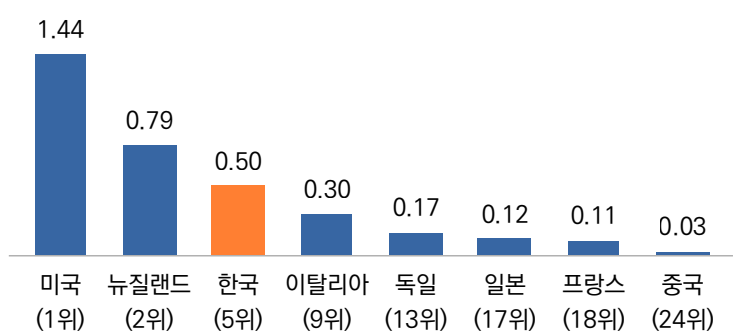
한국의 기부 수준, GDP 대비 0.65%

-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22년 기준 0.6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정점(0.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총 기부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부금 증가세가 GDP 증가세에 못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 주요 국가별 국제 비교(2016년, 24개국 대상) 자료를 보면, 한국은 0.50%로 5위에 위치했으며, 미국(1위, 1.44%)과 뉴질랜드(2위, 0.79%)보다는 낮지만 일본(0.12%), 중국(0.03%) 등 인근 아시아 국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



[그림] 주요 국가별 GDP 대비 기부금 비율 (2016, 24개국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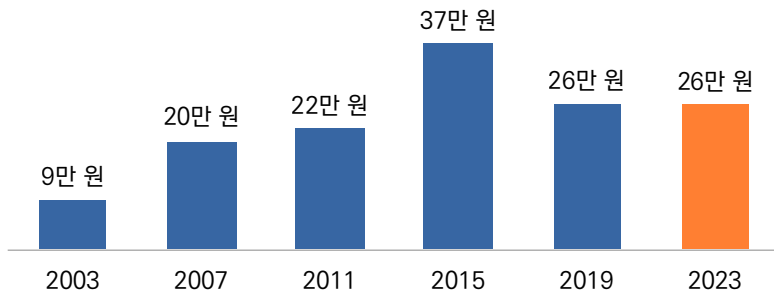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개인 평균 기부금,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세!

- 개인(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2003년 9만 원에서 2015년 37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2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지만, 최근에는 개인 기부 규모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개인(기부자) 평균 기부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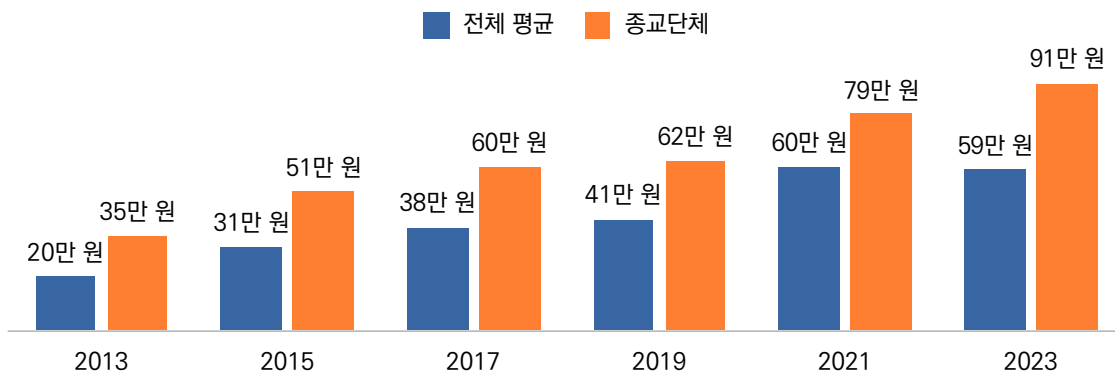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 59만 원, 종교단체 기부 91만 원!

-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그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액: 전체 vs 종교단체 (기부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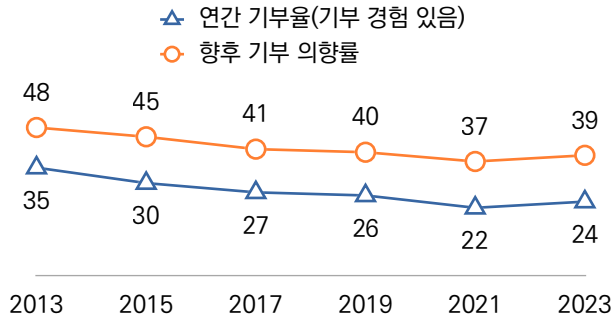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02

[기부 참여와 태도] 연간 기부 참여, 4050세대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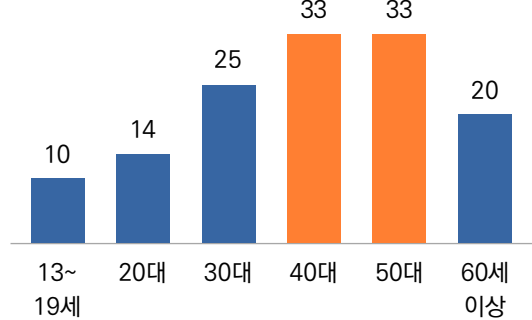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연간 기부율'과 '향후 기부 의향률'은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들어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연령별 기부 참여를 보면 40·50대가 각각 33%로 가장 높아, 기부를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그림] 연간 기부율과 향후 기부 의향률 (13세 이상,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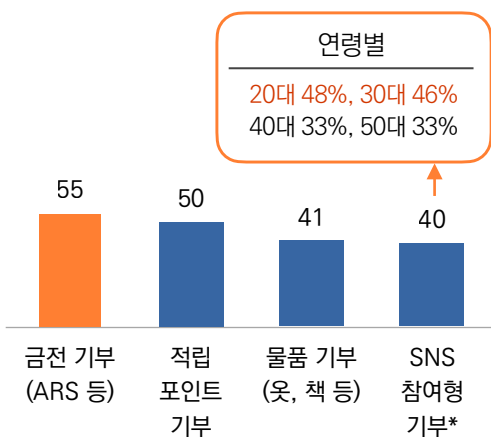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연간 기부율 (13세 이상, %)



주류는 '금전/포인트 기부', SNS 기부는 MZ세대 중심!

- 기부 참여 유형으로는 '금전 기부'(55%)와 '포인트 기부'(50%)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SNS 참여형 기부'는 2030세대(MZ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 기부에 참여한 자들의 기부 동기를 살펴보면,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3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28%,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2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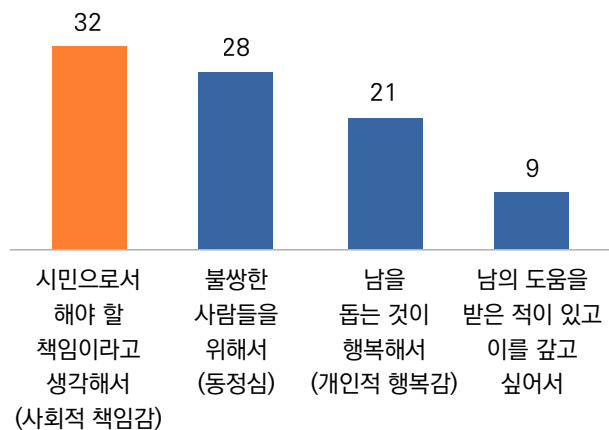
[그림] 기부 참여 유형
(기부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4개,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5.01.(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5.~12.09.)

*SNS 참여형 기부는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기부 활동을 의미하며, 클릭/공유 기부, 챌린지 기부, 콘텐츠 제작 기부, 댓글 참여 기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그림] 기부 동기 (기부 경험자,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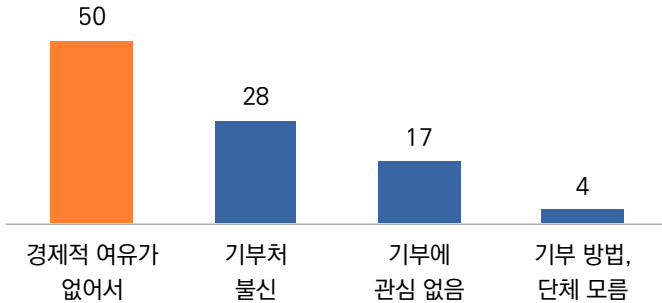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절반은 ‘경제적 여유 부족’!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0%)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기부처에 대한 불신(28%), 기부 자체에 대한 무관심(17%)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부 방법이나 단체를 모른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그림]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부 미참여자, 상위 4개, %)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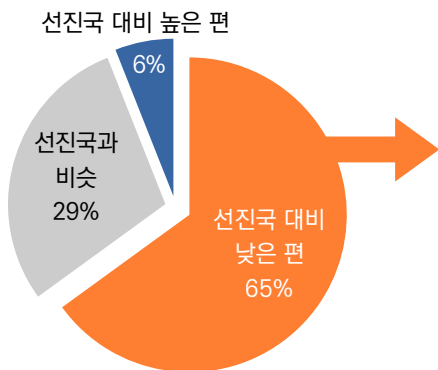
03

[기부 문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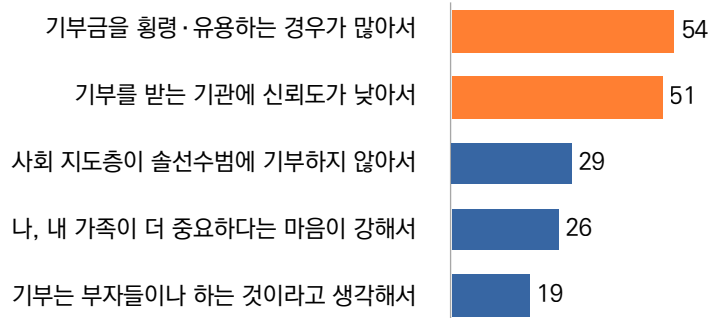
국민들은 기부기관의 횡령/유용 등 요인으로 기부 문화 저평가

- 한국의 기부 문화 수준에 대해 국민 65%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으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 기부 문화 저평가 이유로는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우리나라 기부 문화 수준 평가 (2024)



[그림] 우리나라 기부 문화 저평가 이유 (2024, 기부 문화 수준 선진국 대비 낮다고 응답한 자,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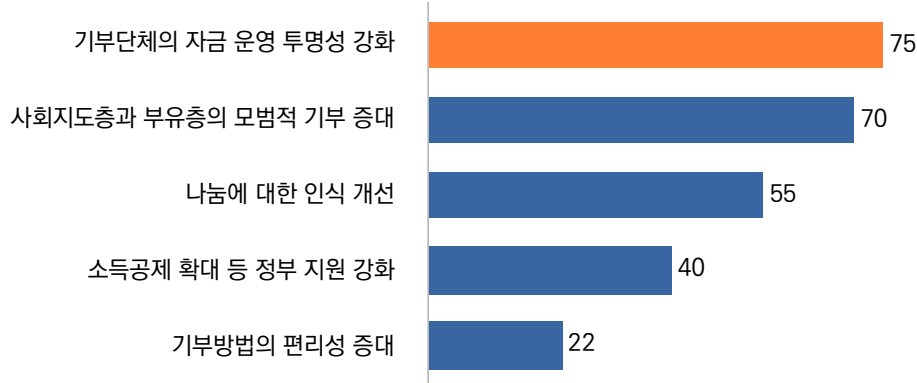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5.01.(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5.~12.09.)

기부 문화 확산 요건, ‘운영 투명성’과 ‘모범적 기부’가 핵심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75%)와 ‘사회지도층·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70%)를 꼽았다. 이어 나눔 인식 개선(55%), 정부 지원 강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024, 13세 이상, 복수응답, 상위 5개,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04

[유산기부와 현금 현황]

유산 기부, 전체 기부금의 1.4%...의향률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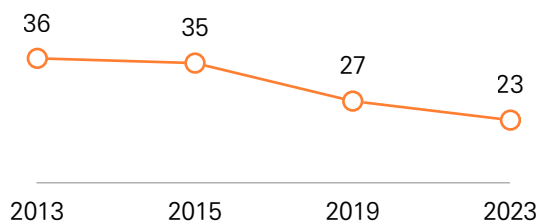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액은 2022년 2,165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을 차지했다.
- 한편, 국민들(만 13세 이상)의 유산 기부에 대한 의향률은 2013년 36%에서 2023년 2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유산 기부액 (2022)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그림] 유산 기부 의향률 (만 13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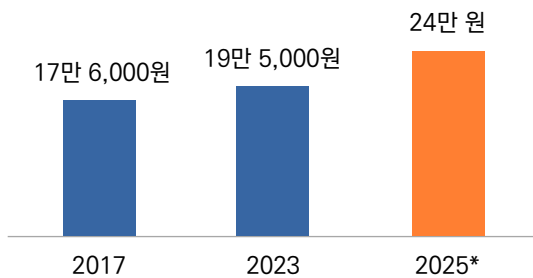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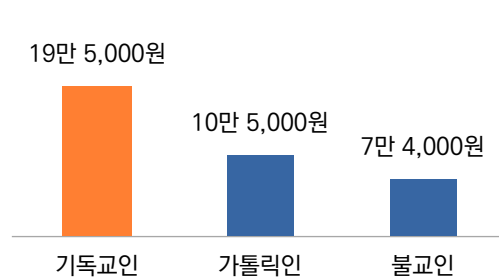
종교별 월 평균 헌금액, 기독교 > 가톨릭 > 불교 순!

-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헌금실태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한목협)에 따르면,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은 2017년 17만 6,000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5년(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는 24만 원까지 높아졌다.
-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이 19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인은 10만 5,000원, 불교인은 7만 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월 평균 헌금액 (교회 출석 기독교인)



[그림] 종교별 월 평균 헌금액 (2023, 종교기관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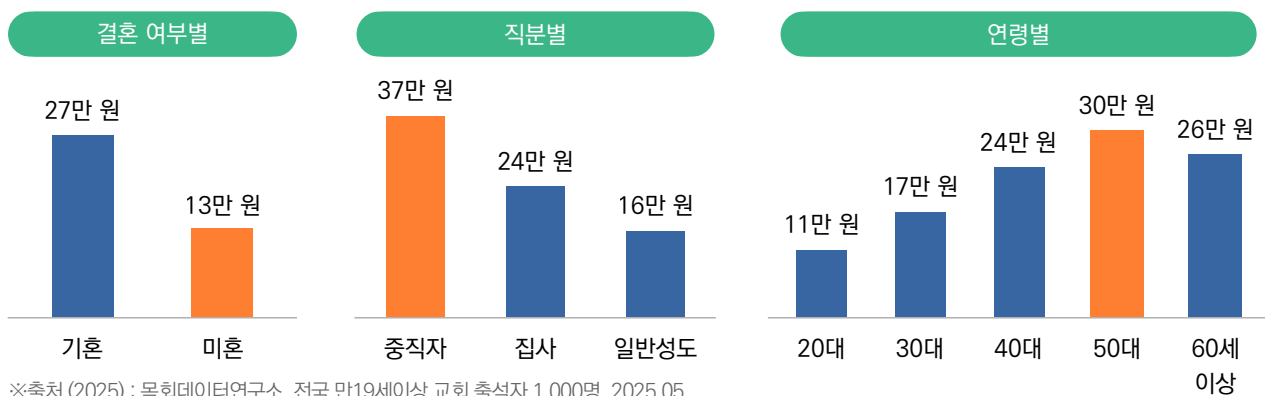
※출처 (2017, 2023)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출처 (2025) : 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 만19세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 2025.05.

50대, 교회 헌금액 가장 높아!

-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을 결혼여부·직분별로 살펴보면,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는 27만 원으로 미혼(13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집사 24만 원, 일반성도 1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50대의 헌금액이 가장 높았다.

[그림] 결혼여부/직분/연령별 헌금액 비교 (2025, 교회 출석 기독교인)



※출처 (2025) : 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 만19세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 2025.05.

이번호 요약

1.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 59만 원, 종교단체 기부 91만 원!

-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2023, 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2. 연간 기부 참여, 4050세대가 주도!

- 우리나라 국민(13세 이상)의 연간 기부율은 2023년 24%였는데,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각각 33%로 가장 높아, 기부를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3. 교회 헌금은 50대가 주도!

-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교회 헌금액을 결혼여부·직분·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혼자(27만 원)가 미혼자(12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50대의 헌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성경에서 찾은 자족, 향유, 나눔의 원리 (양낙홍 저, IVP)

관련 성경 구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7)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기부자의 평균 기부 금액은 201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에서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기혼자와 중직자의 교회 헌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65%가 한국 기부 문화 수준을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와 '기부 기관의 낮은 신뢰도'를 꼽은 것은 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보여준다. 실제 기윤실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2023년)에서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재정투명성'이 2위권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헌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성도들이 기부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나눔의 영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해야 한다. 기부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청지기 정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 행위임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중직자, 50대층이 헌금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이들의 나눔 리더십을 독려하고, 이들을 통해 보다 젊은 세대들이 나눔 행위를 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